

‘기후 변화 영향’ 광주·전남 봄꽃 더 빨리 핀다

매화·개나리·진달래·벚꽃, 평년비 3~7일 빨리 피
 3월 평균 기온, 지난해 가장 높아...올해도 역대 2위
 개화 갈수록 빨라져...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봐야”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광주·전남 지역 봄꽃 개화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3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전남지역 주요 봄꽃 개화시기는 평년(기상관측 상 30년 주기·1991~2020년)보다 모두 앞섰다. 매화는 올해 3월 5일 피기 시작해 평년(3월 8일)보다 사흘 앞섰다. 개나리는 3월 14일 개

화, 평년(3월 21일)보다 일주일 빨랐다. 진달래는 평년보다 사흘 앞선 3월 24일 피기 시작했으며 벚꽃도 3월 25일 개화해 평년보다 6일 빨랐다. 올해 3월 평균기온은 전국적인 기상 관측망이 갖춰진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8.9도였다. 평년 3월 평균기온(7.0도)보다 1.9도 높

다. 3월 평균기온이 9.9도로 역대 가장 높았던 지난해에는 봄꽃이 더 빨리 피었다. 지난해 봄꽃 개화일은 ▲매화 2월 23일 ▲개나리 3월 12일 ▲진달래 3월 18일 ▲벚꽃 3월 18일 등이었다. 기상청은 실제 꽃이 핀 것이 눈으로 확인된 날짜를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30년 사이 광주·전남 지역 3월 평균 기온은 점차 높아지면서 봄꽃 개화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겨울이 점차 짧아지고 3월 평균 기온도 오르는 추세다. 3월 평균 기온은 지난해와 올해

에 각각 역대 1·2위를 달성했다”며 “개화 조건 중 기온 영향이 큰 만큼 봄꽃이 피는 시기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기상청은 ‘국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봄꽃 3종(개나리·진달래·벚꽃) 개화일 전망’ 분석 결과를 통해 탄소배출량이 현 추세를 유지한다면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엔 23~27일 가량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탄소배출량을 대폭 줄인다고 해도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에는 현재(평년·1991~2020년)보다 봄꽃 개화시기가 일주일 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재환기자



벚꽃이 만개한 2일 오후 광주 서구 동천동 광주천변에서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민주당 광주·전남 경선룰 ‘윤곽’...여성·청년특구 확정

단체장 권리당원 50%·여론조사 50% 원칙
 6·1지방선거가 본격 시작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지역 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큰 틀의 경선룰 윤곽이 드러났다. 3일 민주당과 광주·전남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등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인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여론조사) 선거인단 50%를 원칙으로 했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의결하면 경선 방식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당헌 당규에 따라 국민참여경선 이외에 완전국민경선인 국민여론조사 100%와 권리당원 투표 100%, 시민배심원단 경선 등이 가능하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중앙당 지방선거기획단이 결정한 이 같은 내용을 최종 의결했다. 광주시장과 시·군·구청장 후보 경선은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공관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결선 투표도 할 수 있다. 광역의원 경선도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비례대표 추천때 공개오디션 도입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 광주시장 공관위는 지난 1일 첫 회의를 열고 논란되고 있는 광주 광역의원 여성·청년 경쟁 선거구를 지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최이슬기자

벚꽃 만개 광주천, 봄 만끽하려는 시민 발길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관광명소보다는 집 근처에서 벚꽃 구경을 하고 있어요.” 2일 오후 광주 서구 동천동 광주천 일대에는 안전한 봄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붐볐다. 분홍색 꽃망울을 터뜨린 벚꽃은 천변 양 옆을 따라 약 2km에 걸쳐 피어있었다. 평소에도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이 자주 오가는 곳이지만, 이날 만큼은 휴일을 맞아 나들이를 즐기려는 가족·연인 단

위 나들이객이 더 눈에 띄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봄맞이에 나선 시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흐드러지게 핀 꽃을 보며 감탄했다. 한 부모는 어린 자녀를 반씩 들어 올려 벚꽃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도왔다. 연인들은 활짝 핀 벚꽃 앞에서 함께 인증 사진을 찍거나, 한 칸에서 직접 싸운 도시락을 먹기도 했다. 연일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

큼, 시민들은 방역 수칙 준수에도 신경을 썼다. 사진을 찍을 때는 서로 일정 거리를 유지하려는 모습이었다. 3살 자녀를 둔 김모(32)씨는 “자녀가 어리다 보니 감염 걱정이 앞선다”며 “사람이 몰리는 관광 명소 대신 집 근처 도심 공원에서 벚꽃을 구경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모(24·여)씨는 “감염 우려 때문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사진을 찍는다. 코로나19가 잠잠해져 다음엔 꼭 마스크를 벗고 환하게 웃으며 벚꽃 사진을 찍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박남진기자

“매입가 12배 26억 달라” 금성산 등산로 폐쇄...왜?

나주의 진산이자 도립공원 지정을 추진 중인 금성산 일대 등산로 입구 쉼터와 둘레길에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로 폐쇄 또는 시한부 개방되면서 등산객과 둘레꾼들이 불편과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3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나주시 경현동 한수제 우측 금성산 등산로 입구 쉼터가 최근 콘크리트 포장용 철망에 가로막혀 출입이 차단됐다. 해당 등산로 입구 쉼터 부지는 A사가 소유한 전체 3642㎡(약 1047평) 중 일부다. 등산로 입구 쉼터는 당초 나주시가 지난 1970년경 토지주인 금학장학회의 동의를 얻어 조성했으며 주차장 5면과 정자, 조경 시설 등을 설치하고 줄곧 관리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토지를 매입한 A사가 2층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진행을 이유로 입구를 전면 폐쇄했다. 나주시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쉼터로 사용 중인 일부 면적만 매입하기 위해 협의에 나섰지만 부지 확보에 실패했다. A사가 “분할 매각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전체 부지를 26억원에 매입하는 조건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A사가 제시한 금액이 지난해 12월 등기부에 적시된 매입가(2억3000만원) 대비 12배에 달할 정도로 과하다는 점에서 협의를 중단한 채 인근에 우회 등산로 개설을 추진 중이다. 금성산 일대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둘레길로 사용되는 임도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나주시가 산 주인을 설득해 막혔던 길을 가깝스로 열었지만 한시적으로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었어서 언제 또 막힐지 모른다. 이 임도의 경우 사유재산에 해당돼 설치된 구조물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민들이 둘레길을 계속해서 이용하려면 나주시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산주인은 2020년 전면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개발행위를 막고 있는 공원지정을 해제하든지 임야(3만7000평·11만2389㎡)를 나주시가 전체 14억원에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주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해 매입을 검토 중이지만 예산부족으로 당장 사들일 수는 없는 실정으로 확인됐다. 기동취재본부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